

서론: 향유붓는 여인 이야기

- 동심(同心)구조형: A 유월절(1-2); B 예수를 잡으려는 음모(3-5); C 향유붓는 여인(6-13); B' 예수를 잡으려는 음모(14-16); A' 유월절 (17-19)
- 여인이 한 일이란? 낭비가 아니라 “내 장사/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Proper burial.
- 예수의 죽음/처형에 동참. 복음—예수의 신학—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기념.

A. 최후의 만찬 (26:17-30)

1. 몸과 피—예수(의 삶)을 나눔

- 죄사함을 위함(εις ἄφεσιν ἁμαρτιῶν)=> “죄에서 구원할 자”(마 1:21); cf. 20:28.
- 무엇이 죄인가? => 지배체제 아래서 인간본연의 자리를 잃고 해매는 상태 (용어정리, “죄” 참조)

2. 기념 (눅 22:19; 고전 11:24-25)—예수의 삶을 기억=> 기억만? 살아내기

3. 제자들—의미 파악에 실패

- 유다(26:47); 베드로(26: 70, 72, 74); 모든 제자들 도망 (26:56)=> 예수의 죽음 후에 돌아옴.

B. 종교재판 (마 26:57-68)

1. 질문. 네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26:63)

- 예수는 이미 정죄된 상태(12:14; 21:46; 22:15=> 27:20)=>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그를 칠 거짓증거를 찾으매...(59 절)
- 판결(사형)은 정해진 상태에서 단지 적절한 죄목이 필요함. 고로,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는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재판은 예수를 고소하기 위한 예심(豫審, preliminary hearing) 역할.
- 마 21:23 성전에서 정면대립, “무슨 권세로”? => 결말은 예수의 성전체제몰락 선언 (24 장)과 그리고 지배체제는 예수처형 결정(26:3-4)

2.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의미는? (삼하 7:14; 시 2:7)

- 보통 이해는 왕된 그리스도.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22:41-46)
- 대제사장.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26:63) 네가 말하였다. 그러나...
 1. 다시 읽기: 너(σύ)는 그렇게 말하지만—너는 나를 정죄하지만/정죄할 목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희(ὑμῖν)에게 말하노니...
 2. 하늘 구름과 함께 오다 => 단 7:13 (//마 26:64) Q. 어디로 오나/가나? (Answer: to God; not to us) => vindication; 누가 보나? 다니엘의 이상=> not mentioned (단 7:13); 너희가(마 26:64); 그를 찌른 자들도 (계 1:7). 공통점=> 예수를 핍박한 자들. 초점은 예수가 혐의를 벗음으로써, 그 대적자/원수들에게 죄를 물음(시 110:1).
- 신성모독(blasphemy)=>사형에 해당(마 26:66).
 1. 권능의 우편 (시 110:1) =>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성모독에 해당된다면 (m. Sanh. 7:5, “the blasphemer is not culpable unless he pronounces the Name itself”),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그 이름을 피함
 2. 오히려 대제사장이 스스로 신성모독죄에 걸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냐? Cf. 막 14:61, “찬송받을 자”=>YHWH, G-D

B. 형사재판

1.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27:11-26)

- 종교재판에서 신성모독은 형사법상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으로 바뀌어야 함. 이 질문은 그것을 염두에 둠=> 정치적 의미, 곧 내란죄를 찾고자 함.
- 종교재판에서 질문은,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의 대답이 무엇이었던지, 그것은 (다윗) 왕된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점. 다스리기 보다는 섬기는 그리스도(20:28) => 다른 그리스도 이해.
- 그리스도(메시아)란 말 자체는 굳이 정치적이어야 할 이유가 없지만, 종교지도자들은 이것을 정치적 의미로 몰고감. 헤롯대왕 이후 예루살렘과 유대지방은 자체 왕이 아닌 로마총독 관할하에 있었다. 고로 왕(king)이 거론됨은 반란을 의미.

25. 십자가—읽기, 이해하기, 살아내기

- 빌라도의 말 중,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27:17)는 이런 미묘한 차이를 염두에 둔 말 (물론 마태복음 저자의 공로)=> 대체사장들과 유대지도자들의 시기/질투를 알고 있음(18 절).

2. 답. "네 말이 옳도다"(개역).

- 본문은 네가 하는 말이지(σὺ λέγεις), 내 말은 아니다 라는 의미이다. (강조할 목적으로 2 인칭 대명사를 첨가한 사실에 주목하라.) 정치적 음모
- 십자가 처형 (27:38) => 정치적 반역자 (강도, ληστής => 요세푸스에 따르면, 반로마지배체제 투쟁자)
- 바라바=> “유명한 죄수”(마 27:16) //cf. 막 15:7, “민란을 꾸미고…” (기득권자의 표현=> 비교. 광주사태 vs. 광주민주항쟁; L.A. Riot vs. Civil Upheaval).
- 예수가 이들 강도(ληστής)와 같은 처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 성격이 정치적 반역임을 암시. (요 18:40 에서 바라바를 강도로 표기)

C. 신학적 의의

1. 의인의 죽음

-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아람어)/아자브타니(히브리어)=> 예수의 마지막 말. 왜 도와주지 않는가? (<< 시 22:2)
- 십자가 처형은 없었으면 좋았을 일. 십자가 처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일관된 삶—신앙/믿음/복음/가치관—을 사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 =>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마 27:54)
-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예견된 일. 지배이데올로기와의 대립 (로마제국과 당시 지배종교체제). 십자가 처형은 지배체제의 권력 남용
- 유다의 죽음(자살), 빌라도 아내의 꿈, 빌라도의 결끄러운 판결, 백부장의 고백 등=> 이 모두는 예수와 유대 지배체제와의 갈등에 등장하는 엑스트라. 초점은 지배체제가 예수를 불의하게 살해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느님이 ‘살리셨다’! =>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신다!

2. 신학하기. 신학 다시하기

- 성소 휘장이 찢어져(ἑσχίσθη) 둘이 되다 (27:51); 백부장: “하나님의 아들”
- 막 1:10=> 하늘이 갈라지고(σχιζομένους)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 하늘과 성소는 모두 하느님의 처소, 경외의 대상. 성서전통에서 신의 현현(顯現, epiphany) => 하느님이 정의/공의를 나타냄. 예수는 성전의 몰락을 예고. 고로 성소휘장이 찢어짐은 가장 거룩한 지성소(대제사장 권위/나와바리?) 로부터 몰락의 시작.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성전의 몰락의 신호탄!

3. Happy Ending: 무덤이 열리고

- 문자적으로 읽을 수 없는 일
- 무덤, 자던 자 => 죽은 자 같이 움추리고 숨어 있던 제자들의 모습. 예수의 삶은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려운 일.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 삶의 일관성을 배웠다. 그래서 다시 거리(거룩한 도성, 예루살렘)로 나왔다. 주의. 저들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한 후 저들이 밖으로 나왔다=> 예수가 저들 안에서 부활한 것이다.
-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완성, 그리고 시작 =>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리라. (先生の 뜻은?)

생각해 보기

1. 예수를 따름으로써 내가 겪을 수 있는 ‘십자가’/ ‘십자가형’은?
2. 나는 ‘무덤’ 속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나?